

폰토초(先斗町) 게이코(藝妓)의 교육과 예술 활동

이 지 선*

目 次

1. 머리말
2. 폰토초 개관
3. 폰토초 게이코의 교육
4. 폰토초 게이코의 예술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교토(京都) 고카가이(五花街)¹⁾ 중 폰토초(先斗町)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게이코(藝妓)와 마이코(舞妓)의 교육과 예술 활동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것이다.

일본의 전통사회에서는 가가쿠(雅樂), 노(能), 가부키(歌舞伎) 등 대부분이 남성 예술인들에 의해 연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게이코(藝妓)는²⁾ 일본무용, 조루리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 일본전통문화.

1) 원래는 시마바라(島原), 폰토초(先斗町), 기온코부(祇園甲部), 기온히가시(祇園東) 가미시치켄(上七軒), 미야카와초(宮川町)의 룩카가이(六花街)가 있었으나, 이 중 시마바라는 현재 전서관 형태로만 남아있고 이미 폐업된 상태이다.

2) 도쿄(東京)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서는 게이샤(藝者)라는 명칭을 쓰고,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에서는 게이코(藝妓)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淨瑠璃), 사미센(三味線), 나리모노(鳴り物), 후에(笛) 등을 익혀, 자시키(座敷) 뿐 아니라 여러 공연 등 다방면에서 예술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점은 게이코가 여성예술가로서 전통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실로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2007년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온(祇園)과 더불어 교토를 대표하는 가가이(花街)로 알려진 폰토초를 현지 조사하였다³⁾. 이를 통하여 폰토초의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알아보고, 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교류와 성장을 해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폰토초 게이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리자 델비의 『게이사』⁴⁾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폰토초에서의 직접 체험을 통하여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가가이의 생활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외에 폰토초의 유래 및 지역의 변천에 관한 것과 자시키(座敷) 체험담에 관한 것이 있으며⁵⁾, 폰토초의 일년을 사계절로 나누어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고 있는 사진집이 있고⁶⁾, 교토 가가이에 관한 개설서 중 그 일부로써 폰토초를 다루고 있는 것⁷⁾, 교토 마이코들의 사진집⁸⁾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개설서나 사진집 등이 대부분이고, 폰토초 게이코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폰토초의 게이코가 되기 위해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학교교육과 예술교육을 어떠한 과정과 체계를 통하여 학습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예술 활동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가모가와가쿠엔(鴨川學園), 폰토초 오차야영업조합(先斗町お茶屋營業組合), 폰토초 게이코조합(先斗町藝妓組合), 교토전통기예진흥재단(京都傳統技藝振興財團) 등의 방문조사 및 소장자료 조사, 오차야(お茶屋)⁹⁾인 지에

3) 본고에서는 교토 가가이 연구의 첫 단계로 고카가이 중 폰토초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로써 교토의 가장 대표적인 가가이인 기온, 그 외에 가미시치켄, 미야카와초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

4) Dalby, Liza(1983), *Geisha*,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리자델비 저, 유용훈 역(1999), 『게이사』 도서출판우석.

5) 京を語る會(1993) 「先斗町」, 「夜の先斗町」 『京都遊廓見聞録』 京を語る會, 121-129, 130-139頁.

6) 溝縁ひろし(1997) 『京都先斗町』 光村推古書院.

7) 相原恭子(2001) 『京都舞妓と芸妓の奥座敷』 文藝春秋.

8) 溝縁ひろし(1995) 『京舞妓歳時記 溝縁ひろし寫眞集』 東方出版. (2002) 『京都花街 祇園甲部・宮川町・上七軒・先斗町・祇園東』 光村推古書院. (2004) 『はんなりと京舞妓の四季』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ジョンフォスター(2006) 『京舞妓百景：ジョンフォスター寫眞集』 東方出版.

노야(千榮の家)의 오카미상(女將さん), 원로 현역게이코인 히사후미(久富美)씨, 이치미쓰(市光)씨, 마메치요(豆千代)씨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다.

2. 폰토초 개관

폰토초는 교토 시내를 흐르는 가모가와(鴨川)를 따라 형성된 곳으로, 남북으로 500미터 정도 이어지는 좁고 긴 구역이다. 1670(寬文10)년에 가모가와와 다카세가와(高瀬川) 사이에 호안공사(護岸工事)를 하면서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폰토초의 기원이다. 1674(延寶2)년에는 와카마쓰초(若松町) 동쪽 강가에 처음으로 집이 다섯 채 들어섰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급속하게 집들이 세워졌고, 1712(正徳2)년에는 요리점 경영허가가 내려졌다. 또한 오차야(お茶屋)와 하타고야(旅籠屋) 등이 공인되면서 자타테온나(茶立女)가 허가되었다. 이어서 1813(文化10)년에는 가무를 기예로 손님을 접대하는 게이샤(藝者)가 허가되었다.¹⁰⁾

<사진1> 폰토초(先斗町)



당시 폰토초는 수운(水運)이 활발했던 다카세가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오차야보다 강을 왕래하던 뱃사공이나 여객이 숙박할 수 있는 하타고야가 많

9) 게이코와 마이코가 일하는 곳으로, 손님들이 연회를 즐기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다. 오차야에는 연회석, 오카상お母さんの 방, 거실, 부엌 등이 있다.

10) 堂本彌太郎(1913) 『かも川踊細見』 太田活版所. 2-3頁.

은 마을이 되었다. 1813년 게이샤 영업허가가 내려지기 전에는 하이젠(配膳)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연석(宴席)을 담당했다. 손님 중에는 흥을 돋우기 위해 무용 감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 마을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소녀들을 불러 자시키에서 춤을 추게 하였고, 나중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이코(舞妓)의 시작으로 알려진다. 폰토초는 교토에서 시마바라(島原), 기온(祇園), 니조신치(二條新地)와 함께 유명하게 되어 갔다. 1870(明治3)년이 되자 그때까지 니조신치의 분점으로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 독립적인 가가이 폰토초로서 영업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폰토초의 명칭에는 여러 설이 있다. 전술했듯이 1674년 와카마쓰초 동쪽 강가에 처음으로 집이 다섯 채 들어섰는데, 앞쪽에만 집이 세워졌다고 해서 사키바카리노마치(先き斗かりの町)로 불렸고, 이것이 언제부터 폰토초(先斗町)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설은 폰토초의 명칭이 북소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동쪽에는 가모가와라는 가와(川、皮)가 있고 서쪽에는 다카세가와라는 가와(川、皮)가 있어, 가와와 가와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마치 북(鼓)과 같기 때문에 북의 음색(‘폰’)을 따서 폰토초라고 한다는 것이다.¹¹⁾

2007년 2월 현재 폰토초는 오차야 32개가 영업하고 있고, 게이코 41명과 마이코 9명이 활동하고 있다.¹²⁾ 쇼와(昭和) 초기까지만 해도 오차야는 170개가 넘었고 게이코와 마이코도 합쳐서 300명 정도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5분의 1도 안되는 수에 이르게 되었다.

3. 폰토초 게이코의 교육

교토의 고카가이에는 마이코나 게이코가 다니는 학교가 있다. 폰토초의 학교는 가모가와가쿠엔(鴨川學園)으로, 조루리, 샴시센, 나리모노, 후에, 일본무용, 다도 등을 가르치고 있다. 마이코는 물론 게이코도 현역에 있는 이상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반드시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들의 예술을 연마한다.

가모가와가쿠엔의 연혁과 교육 체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모가와가쿠엔의 내부 자료로서 이 학교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철해 놓은 『학교조사표(學校調査票)』¹³⁾와 실제 5, 60년 전부터 가모가와가쿠엔을 다니고 있는 게이코들의 구술에 의해서 폰토초 게이코

11) 京を語る會(1993) 『先斗町』 『京都遊廓見聞録』 京を語る會, 121-129頁.

12) 先斗町歌舞會(2007) 『平成19年 廓の栞』 先斗町歌舞會.

의 교육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모가와가쿠엔(鴨川學園)의 연혁

가모가와가쿠엔의 역사는 1873(明治6)년 6월에 설치된 ‘부녀직공인립회사(婦女職工引立會社)’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녀직공인립회사의 설립은 1872(明治5)년 6월에 발생한 마리아 루스호 사건이 계기가 된다. 요코하마(横浜)에 정착해 있던 페루의 선박 마리아 루스호에서 청국인(淸國人)이 노예생활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본이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유조(遊女)라는 명백한 인신매매를 공인하고 있는 일본이 타국의 인신매매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마리아 루스호 사건에 의하여 외국 여러 국가가 주시하는 가운데, 급하게 일본의 인신매매를 폐지할 필요성을 느낀 메이지(明治) 신정부는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제295호를 발표, 게이코와 쇼기(娼妓) 등의 연기봉공인(年期奉公人)을 모두 해방하고, 그들의 전차금(前借金)의 무효를 포고하는 ‘예창기해방령(藝娼妓解放令)’을 공포한다. 도쿄부(東京府)를 시작으로 각 현(縣)은 유조야(遊女屋)를 가시자시키(貸座敷)로 개칭하고, 자신의 의지로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예창기도세(芸娼妓渡世)를 허가하는 방침을 내고 실행하였다.

예창기해방령이 내려지자 이에 의해서 폐업하는 게이코와 쇼기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교토부(京都府)는 권업정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게이코들에게 재봉이나 자수, 양잠, 제차(製茶) 등과 일반 교양과목을 가르쳐, 이들이 가가이 밖에서 일하려고 할 경우 사회에 적응을 잘 하도록 각 가가이에 부녀직공인립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1873년 2월 시마바라(島原)를 시작으로, 3월에는 기온(祇園)과 가미시치켄(上七軒), 4월에는 미야카와초(宮川町), 6월에 폰토초에 연이어서 부녀직공인립회사가 설립되었다. 부녀직공인립회사는 여성에게 일을 지원하는 곳이었지만, ‘女工’이라는 용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女紅’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다음 해인 1874년 4월 ‘노코바(女紅場)’로 개칭하였다. 원래 노코바는 마을의 부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에서 사용되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가가이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부녀자들의 노코바는 소학교를 졸업한 여자들이 다니던 곳으로 교토에는 1872년 교토부립 노코바(京都府立女紅場)가 개교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일본 최초의 여학교인 교토부립 제일고등여학교로 개칭되었다.

폰토초의 노코바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가모가와(鴨川)의 이름을 따서

‘오가이노코바(鴨涯女紅場)’로 불리게 되었고, 폰토초 게이코를 대상으로 한 여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오가이노코바의 1902(明治35)년의 기록에 의하면, 노코바의 장(場長)은 구스노키 고사부로(楠小三郎), 이사는 이즈모 후사지로(出雲房次郎), 교사로는 조루리에 노자와 기치고로(野澤吉五郎)가, 무용에 후루타 세이(古田せい)와 하시모토 미토(橋本みと), 나리모노에 니시무라 고(西村こう), 산젠(三弦)에 오카모토 에쓰(岡本ゑ津)와 쓰다 다미(津田たみ), 지우타(地歌)에 니시아마 도쿠(西山とく), 다도에 아케타 무네타루(明田宗春)가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의 오가이노코바는 게이코가 되기 위한 과목을 배우는 곳이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는 아니었다.

오가이노코바의 대표를 맡았던 구스노키의 후임이 된 이즈모는 1899(明治32)년 실행의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에 근거하여, 1913(大正2)년 9월에 ‘사립쇼케이학교(私立尚藝學校)’ 설립 인가를 교토부지사(京都府知事)에게 신청하였고, 이듬해인 1914년에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1918(大正7)년 11월 11일에 간행된 『관고(觀古)』의 「릿세이 진조소학교 연혁략(立誠尋常小學校沿革略)」에는 ‘다이쇼3년 4월 처음으로 폰토초 쇼케이학교(尚藝學校)의 수업을 시작한다(大正三年四月始メテ先斗町尚藝學校ノ授業ヲ開ク)’라고 기재되어 있어, 1914년 4월부터 폰토초에 정식으로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학사관계자로서 학구회부의장(學區會副議長)을 겸하고 있었던 이즈모는 설립취지에 대해서 ‘폰토초 구역 아동의 생활환경이 다른 아동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학교를 설치한다. 이 학교는 릿세이교(立誠校, 릿세이 진조소학교)의 분교(分校)적인 성격을 띤다’라고 말하고 있다. 폰토초 구역 아동의 생활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집을 떠나 가가이(花街)의 오키야(置屋)¹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환경이 일반 아동들의 환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이 가가이에서 필요한 예술과목과 더불어 일반과목도 배울 수 있는, 즉 일반학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릿세이 진조소학교는 교토시 나카교쿠(中京區)에 있었던 일반 학교였는데, 이 학교와 같은 나카교쿠에 있는 폰토초에 릿세이교의 분교로서 사립 쇼케이학교(私立尚藝學校)를 세운 것이다.

이즈모가 1929(昭和4)년 사망하고, 후임으로 온 데라이 테쓰로(寺井徹郎)도 대표와 릿세이 학구회부의장을 겸하였다. 그는 1935(昭和10)년 실행의 청년학교령(青年學校令)에 의해서 1940(昭和15)년 2월에 ‘사립청년학교 쇼케이실무어

13) 先斗町鴨川學園事務室(1874-1998) 『學校調査票』先斗町鴨川學園事務室.

14) 마이코나 게이코가 소속된 프로덕션과 같은 곳으로, 교토에서는 야카타(屋形)라고 한다.

학교(私立青年學校 尚褻實務女學校)’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아리모토 무라오(有本村尾)를 초빙한다. 쇼케이실무여학교 이전인 사립 쇼케이학교 당시에는 교장이 따로 있지 않았고, 오차야조합장(お茶屋組合長)이 겸직으로 있었는데, 쇼케이 실무여학교로 되면서 처음으로 교장이 부임한 것이다.

1948(昭和23)년 5월 데라이의 후임으로 온 유구치 기이치로(湯口喜一郎)는 전년도인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 제83조 각종학교(各種學校)에 준거하여 ‘쇼케이여학원(尚褻女學院)’을 설립하였다. 각종학교란 정규의 학교(1條校) 이외에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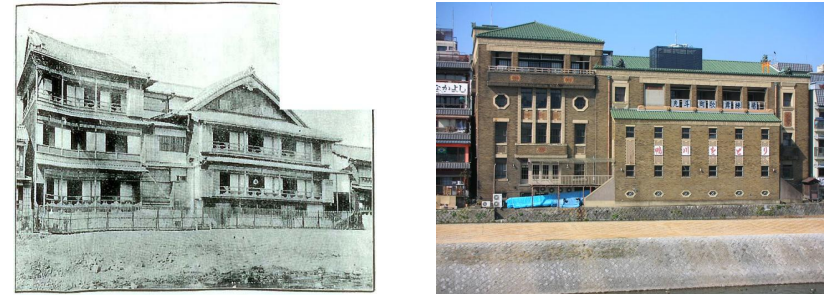
쇼케이(尚褻)라는 학교이름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褻’ 자는 당시 상용한자에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류작성이나 사무정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8(昭和33)년 2월 27일 쇼케이여학교의 이름을 없애고, 폰토초가 인접해 있는 가모가와(鴨川)의 이름을 따서 ‘가모가와가쿠엔(鴨川學園)’으로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75년 야마구치 에이(山口エイ)가 부임한 이후로는 원장(교장)을 두지 않고 오차야 영업조합장이 겸직하게 되는데, 1976년에는 요시이 미치타다(吉井道忠), 1996년에는 마에다 기요에(前田喜代江),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시모토 요코(岸元要子)가 폰토초 오차야 영업조합장과 가모가와가쿠엔의 원장을 겸하고 있다.

가모가와가쿠엔은 폰토초 가부렌조(先斗町歌舞練場)에 있다. 폰토초에 가부렌조의 건물이 생긴 것은 1902(明治35)년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물은 두 번째 것으로 1927(昭和2)년에 완성되었다. 1935(昭和10)년에 발생한 가모가와와의 범람 때에는 폰토초 주민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전쟁 후 진주군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는 미군의 무도회장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폰토초 가부렌조에는 가모가와가쿠엔 외에 폰토초오차야 영업조합(先斗町お茶屋營業組合), 폰토초 게이코조합(先斗町藝妓組合), 폰토초 가무회(先斗町歌舞會)가 상주하고 있다.

<사진2> 1919(大正8)년 당시¹⁵⁾와 현재의 폰토초 가부렌조의 모습



2) 가모가와가쿠엔(鴨川學園)의 학습내용과 방법

1873년에 설립된 부녀직공인립회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가이를 떠난 게이코와 마이코가 일반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재봉, 자수, 양잠, 제차 등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주로 가르쳤다. 1874년 노코바로 되면서도 학습 내용은 변함이 없었지만, 1881년에는 이 중 제차와 양잠 과목을 없애고 수신과목을 첨가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1900년대 초기까지 오가이노코바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목을 가르쳤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02년의 기록에 의하면, 오가이노코바의 학습 과목은 조루리, 무용, 나리모노, 산겐(샤미센), 지우타, 다도로, 음악이나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가가이를 떠난 게이코의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1900년 초에는 남아있는 게이코나 마이코가 가가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술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된 사립 쇼케이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학습 내용을 보이고 있다. 가가이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폰토초의 게이코가 되기 위한 여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술을 연마하면서 일반 아동들처럼 소학교에 다니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샤미센, 무용 등과 더불어 일반과목을 병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당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진조소학교의 ‘분교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보통 소학교의 아동들이 배우는 일반 교양과목이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학교는 6년의 의무교육이었지만, 쇼케이학교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수준의 내용을 학습했다고 한다.

15) 先斗町歌舞練場(1919) 『鴨川をどり』先斗町歌舞練場.

1940년에 설립된 사립청년학교 쇼케이실무여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한 아리모토 무라오 교장은 1974년 은퇴할 때까지 교장이면서도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겸하였다. 아리모토 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현역 게이코에 의하면, 그는 직접 국어, 습자(習字), 수학, 서양화, 일본화 등 여러 과목을 가르쳤다고 한다.

1948년 학교교육법(각종학교)에 의해 설립된 쇼케이여학원에 관해서는 1951년의 기록에 의하면, 본과(本科)와 연구과(研究科)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었다. 본과는 2년간의 기간으로 1951년 당시에는 42명의 마이코가 소속되었다. 연구과는 본과를 마친 마이코나 게이코가 소속되었는데, 일정 기간이 아닌 게이코 활동을 하는 동안 평생 다니는 학습과정이었다.

1958년 가모가와가쿠엔으로 개칭된 후, 1963년의 기록에 의하면 커리큘럼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습자, 회화, 다도, 호부(邦舞, 일본무용), 호가쿠(邦樂, 일본음악)로, 일반교양이 국어를 시작으로 여섯 과목이 있었고 실제 자시키(座敷)에서 필요한 다도와 일본무용, 일본음악이 학습되었다. 당시 마이코였던 게이코에 의하면 영어는 자시키 등에서 외국 손님의 접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회화를 중심으로 배웠다고 한다. 당시 호가쿠의 세부 과목은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로 게이코에 의하면, 호가쿠의 과목에는 일본무용, 나가우타(長唄), 도키와즈(常磐津), 기요모토(清元), 기다유(義太夫), 고우타(小唄), 지우타(地唄)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1974년까지 아리모토 무라오 교장이 재직하였고, 커리큘럼으로는 일반교양과목, 다도, 호부, 호가쿠가 있었다. 그러나 1975년 야마구치 에이 대표가 교장이 되면서 일반과목이 없어졌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무용과 음악, 다도만 학습되고 있다. 1975년에 일반과목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아리모토 무라오 교장이 은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아리모토 교장은 가모가와가쿠엔에서 대부분의 일반과목을 가르쳤는데, 후임으로 온 야마구치는 교사가 아니었고, 또한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일반과목을 제외한 무용과 음악, 다도만으로 구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가모가와가쿠엔에서는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학습되지 않고 실제 자시키나 무대에서 필요한 예술과목을 중심으로 학습되고 있다. 따라서 197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일반과목의 학습을 마친, 즉 의무교육을 마친 소녀들만이 가모가와가쿠엔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정식으로 마이코로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된 것이다.

1975년 이전, 커리큘럼에 일반과목이 있었을 때에는 가모가와가쿠엔의 시간표가 일반학교와 같이 매일 정해져 있었지만, 일반과목이 없어지고 음악과 무

용, 다도가 중심인 현재는 한 과목에 보통 3, 4일간 학습이 이루어진다. 매월 초에는 가모가와가쿠엔에서 만든 ‘수업예정표’가 각 야카타(屋形)에 전달되고, 야카타는 소속된 마이코와 게이코에게 이를 전해준다.

<예1>은 2006년 12월 가모가와가쿠엔에서 만든 수업예정표로, 지에노야(千榮の家)로 배부되어 히사후미(久富美)씨에게 전해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현재 차기과(茶儀科), 무용과(舞踊科), 오기에과(荻江科), 기요모토과(清元科), 도키와즈과(常磐津科), 나가우타과(長唄科), 고우타과(小唄科), 나리모노과(鳴物料: 太鼓, 大鼓, 小鼓 등), 후에과(笛科)의 9과목이 정식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보통 한달에 과목당 3일이나 4일, 길게는 5일 동안 배우는데, 차기과는 매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과목은 날짜가 대부분 밀집해 있다. 선생은 도쿄에서 출장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은 3, 4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이코(舞妓)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용을 기예로 하기 때문에 무용을 필수적으로 배우고, 이 외에 나가우타와 나리모노, 다도가 필수과목이다. 따라서 마이코들은 이 네 과목은 반드시 배워야 하며, 이 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더 많은 과목을 학습하기도 한다.

게이코는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다치카타(立方)와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지카타(地方)로 나뉜다. 따라서 다치카타는 무용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지카타는 오기에, 기요모토, 도키와즈, 나가우타, 고우타 등의 샤미센음악과 나리모노, 후에 과목에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골라 수업에 참가한다.

무용 수업의 경우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른 시간은 마이코들의 수업, 다음은 35세 이하 정도의 젊은 게이코들의 수업 그리고 그 외의 게이코들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표상의 수업 외에도 자시키에서 특별한 무용을 해야 하는 경우나 다른 곡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수업 당번에게 신청하여 정규시간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기도 한다. 무용 수업은 교재 없이 스승의 동작을 따라하는 반면에 샤미센 등의 악기와 조루리, 노래의 경우에는 악보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예1> 2006년 12월 수업예정표

平成 18 年 12 月 授 業 予 定 表		鴨川学園																																
科目	教授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備 考	
茶儀科	渡邊宗修師																																	正午～
舞踊科	尾上菊之丞師																																	A.M.11:00～
舞踊科	尾上菊榮郎師																																	別紙参照
荻江科	荻江寿友師																																	A.M.11:00～
清元科	清元榮三師																																	今月授業なし
常磐津科	常磐津一佐太夫師																																	A.M.11:00～
長唄科	杵屋吉之丞師																																	A.M.11:00～ 8日は丹鶴様 宅にて稽古
小唄科	春日とよ子師																																	P.M.1:30～
鳴物科	藤舎呂船師																																	今月授業なし
笛科	藤舎名生師																																	未定

久留美様

마이코로 데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곡은 <하루아메(春雨)>, <교노시키(京の四季)>, <나쓰와호타루(夏は螢)>, <와시가쇼자이(わしが所在)>, <기온코우타(祇園小唄)>, <가모가와코우타(鴨川小唄)>이다. 이중 <교노시키>, <와시가쇼자이>, <기온코우타>, <가모가와코우타>는 다른 지역의 가가이에서는 전수되지 않는 교토 가가이만의 곡이고, 특히 <가모가와코우타>는 폰토초에서만 전승되는 곡이다. 스승들은 대부분 도쿄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곡들은 스승이 아니라 선배 게이코로부터 배운다고 한다.

음악장르는 대부분 다른 가가이와 공통적인 내용을 학습하지만, 일본무용은 각 가가이마다 다른 유파를 전수하고 있다. 폰토초에서는 원래 가부키무용인 오노에류(尾上流)를 학습한다. 오노에류의 무용은 이에모토(家元)인 오노에 기쿠노조(尾上菊之丞)와 그의 제자이기도 한 오노에 기쿠시로(尾上菊紫郎)가 가르치고 있다.

정규과목 외에 수업예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외공연이나 자시키에서 외국손님 접대에 필요한 영어회화도 마이코와 젊은 게이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가모가와가쿠엔의 학생은 폰토초의 마이코와 게이코 전원으로, 연령도 15세에서 80세가 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즉, 가모가와가쿠엔은 현

역으로 게이코 활동을 하는 한 평생 다니는 가가이의 특수한 학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출석률이 반영되어 매년 1월 7일 행해지는 가모가와가쿠엔의 시업식(始業式)때 출석률이 좋은 게이코와 마이코가 표창을 받는다. 연말에 각 분야의 선생들이 출석표를 제출하고 가모가와가쿠엔에서 출석 통계를 내어 표창에 반영한다. 표창은 출석률 외에도 매상이 많은 우수한 게이코, 마이코, 오차야 등에게 수여된다.

4. 폰토초 게이코의 예술 활동

고카가이(五花街)에서는 각각 봄(기온히가시는 가을)에 약 한달 동안 게이코와 마이코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폰토초의 공연은 가모가와오도리(鴨川をどり)라고 하는데, 가가이 뿐 아니라 교토의 봄 행사로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이 외에 가을 공연인 스이메이카이(水明會), 스승의 연구발표회, 폰토초 내부의 작은 발표회 등 일년을 통하여 여러 공연이 연행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폰토초가부렌조(先斗町歌舞練場)에서 연행되는 무용공연이지만, 이 외에 게이코와 마이코들은 교토의 마쓰리나 지역 행사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1) 가모가와오도리(鴨川をどり)

가모가와오도리(鴨川をどり)는 매년 5월 1일부터 24일까지 폰토초가부렌조에서 공연된다. 초연은 1872(明治5)년으로, 「구모이노니와(雲井の庭)」라는 제목으로 교토 나카교쿠(中京區)에 있었던 지요노야(千代の家)에서 열렸다. 가모가와오도리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은 1871(明治4)년 10월에 개최된 일본 최초의 박람회인 교토박람회(京都博覽會)였다.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도쿄 천도에 의해서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가 침체되자, 어떻게든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교토의 호상(豪商) 세 명(三井八郎右衛門, 小野善助, 熊谷直孝)의 주축으로 일본 최초로 박람회가 한 달간 개최되었다. 또한 박람회를 한층 북돋기 위해서 당시 교토부 참사(京都府参事)였던 마키무라 마사나오(槇村正直)의 발상으로 쓰케박람(附博覽會)(이벤트)을 계획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72년에 박람회 여흥으로써, 기온코부(祇園甲部)와 함께 폰토초의 게이코와 마이코의 가무와 예능이 공연된 것이다.¹⁶⁾ 이것이 기온코부의 미야코오도리(都をどり)와 함께 시작된 폰토초의

가모가와오도리이다.

가모가와오도리는 1883년(明治16)부터 10년간 상연을 중단하였으나 1895년 6월에 재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다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46년에 바로 재개하였고, 1951년부터는 봄과 가을의 연2회 구성으로 1998년까지 계속되었다. 현재에는 봄에만 공연하고, 가을에는 스이메이카이(水明會)의 공연이 행해지고 있다.

가모가와오도리는 2007년 현재 170회를 맞이하고 있어 고카가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해오고 있다. 제1부는 스토리가 있는 무용극, 제2부는 마이코들이 출연하는 짧은 무용작품으로 구성된다. 폰토초에서는 무용을 오노에류(尾上流)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모가와오도리는 오노에류의 이에모토인 오노에 기쿠노조(尾上菊之丞) 감수에 의해 무용극이 상연된다.

<예2> 쇼와 초기 가모가와오도리와 「폰토초레뷰단」 기사17)



쇼와초기에는 일본 전통극 외에 장 콥토(Jean Cocteau),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 등이 공연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1913년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寶塚少女歌劇團)이 발족된 후 무용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연극인 소녀 레뷰(revue)가 인기가 높아져, 도쿄를 중심으로 경연극(輕演劇) 레뷰극단이 연이어 생겨났다. 폰토초의 마이코들도 <예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폰토초 레뷰단(先斗町レビュー團)을 결성하여 외국 작품을 극화하여 서양음악에 맞추어 새로운 무용을 선보였고 이는 당시 교토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것은 폰토초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다른 가가이와는 다르게 신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2) 스이메이카이(水明會)

스이메이카이(水明會)는 1929(쇼와4)년부터 시작된 폰토초의 대표적인 가을 공연이다. 가모가와오도리가 스토리가 있는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한 쇼(show)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스이메이카이는 고전곡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연행된다. 기량이 뛰어난 게이코에게만 출연의 기회가 주어지는 엄격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어서, 스이메이카이에 출연이 결정된 게이코들은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고 한다.

스이메이카이는 나가우타(長唄) 지요에이카이(千代榮會)와 도요카이(土曜會)가 결합한 공연이다. 메이지가 되자 나가우타는 더욱 융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폰토초에도 1907(明治40)년 2월 나가우타 연구회인 지요에이카이가 발족되었고, 1929(昭和4)년 6월, 제37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예연습의 조직 외에 오가이노코바가 전과목의 연구회를 주도하여 도요카이로서 1929년 9월 24일 토요일에 제1회 공연을 개최하였다. 제1회 공연은 <예3>에서 보듯이 『京都日出新聞』의 문화계 소식으로서 공연의 성격, 상연곡목, 출연진 등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요에이카이와 도요카이의 두 공연은 발전적 합병을 하고, 그 이름을 가모가와(鴨川)의 맑은 물에 착안하여 스이메이카이(水明會)로 정했다. 스이메이카이는 1929년 특별 기준 이상의 기량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여 1930년 3월 15일 제1회 공연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서는 <예3>과 같이 다음 날인 3월 16일자 『京都日日新聞』에 ‘先斗町「水明會」第一回の演奏會 技藝鍊磨の暗礁へ’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폰토초 내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지요에이카이를 해체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압력이었고 나가우타 팬들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한다. 이날 공연은 지요에이카의 공연보다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지요에이카이 소속의 게이코들이 지요에이카이의 해체에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공연에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스이메이카이의 탄생 초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橋爪神也·寺下勲(2005) 『京都博覽會』 『日本の博覽會』別冊太陽 日本のこころ133 平凡社. 10-11쪽.

17) 技藝俱樂部(1927) 『かも川踊 寫眞帖』 技藝俱樂部社. 『京都日日新聞』 1929년 6월 23일자.

<예3> 도요카이와 스이메이카이에 관한 신문 기사¹⁸⁾



스이메이카이는 1941년 10월의 제36회 공연까지는 매년 3·6·10월 연3회 정기적으로 행하였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3년 11월에는 군용기 헌납자금 모금 공연을 하기도 했다. 전쟁 후에는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9년 9월 제38회 공연으로 재개했고, 1953년까지 매년 3·9월 연2회 공연이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순조롭게 행되어 왔지만, 1995년에는 한신(阪神) 대지진으로 중단되었고, 1997년에도 사정에 의해서 휴지하였다. 1966년부터 매년 개최를 3월에 하고 있었던 것을 1999년부터 가을의 가모가와오도리를 상연하지 않게 된 것을 계기로 10월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스이메이카이는 오랜 역사를 거쳐 가가이 폰토초 가무회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정착하였고 이를 통하여 게이코들은 그들의 예술기량을 연마해 오고 있다.

3) 온슈카이(溫習會)

현재에는 행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폰토초에 온슈카이(溫習會)라는 공연이 있었다. 온슈카이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 의한다면¹⁹⁾ 적어도 1928년에는 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이 제41회의 공연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²⁰⁾ 1910년대,

즉 메이지(明治)말기나 다이쇼(大正)초기에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 게이코였던 지에노야(千榮の家)의 오카미상(女將さん)에 의하면, 온슈카이는 고전작품을 위주로 하지만 창작물도 간혹 연주되었는데, ‘溫習會’가 의미하는 것처럼 평소의 쌓아왔던 기량을 발표하는 공연이었다고 한다.

온슈카이는 약3-4일간 아침과 저녁 두 차례로 나뉘어 행되었다. 폰토초의 명부인 「구루와노시오리(廓の葉)」의 1950년판에 의하면²¹⁾, 당시 게이코는 126명, 마이코는 10명으로 총 136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1950년의 온슈카이의 팸플릿에는 무용에 참가한 사람(立方)이 57명, 반주를 하는 사람(地方)이 48명으로 총 105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것으로 보아 온슈카이에는 스이메이카이와는 달리 폰토초의 게이코와 마이코 대부분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는 온슈카이를 공연하기 전에 교토부(京都府)에서 대본을 미리 검열 받아야만 했다. 현재 가모가와가쿠엔의 사무실에는 폰토초가부카이(先斗町歌舞會)의 자료로써 쇼와(昭和)5년부터 13년까지(1930-1938)의 『온슈카이 무용대본(溫習會舞踊臺本)』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예4>는 1934(昭和9)년 10월 30일에 검열을 마친 도키와즈의 신작 <孫悟空>과 나가우타 <風流志道軒>의 예이다²²⁾.

<예4>의 첫 번째 사진에는 작품의 이름과 함께 붉은 도장으로 ‘京都府’, ‘主意’, ‘穴森’가 찍혀있다. 이것은 교토부의 검열에 의한 것으로 검열자의 이름과 함께, 검열 결과 ‘주의’를 요하는 대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검열에서 적절하지 못한 곳을 붉은 색 점으로 표시한 대목으로, 이 부분만 추출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一人づゝ順々に、色衣を脱いで桃の枝にかけ、泉水の中へ飛込む。(十枚目)
 珠なす水のたぎりては、おのづからなる湯加減に、肌も心ものんびりと
 泉水の中では、笑ひさゞめき、面白さうに戯れてゐる容子を、透かして見せる。(十一枚目)

이에 관해서는 세 번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오공>의 대본 마지막 장에 주의할 점이 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十枚目十一枚目朱点ノ個所注意すべし
 風俗上着衣ニツキ制限スルコトアルベシ

18) 『京都日出新聞』1929년 9월 25일자. 『京都日日新聞』1930년 3월 16일자.

19) 鴨涯歌舞會(1928) 『溫習會番組』鴨涯歌舞會.

20) 先斗町歌舞會(1949, 1950) 『第四十回, 第四十一回 先斗町秋季歌舞溫習會』先斗町歌舞會.

21) 先斗町歌舞會(1950) 『昭和25年 廓の葉』先斗町歌舞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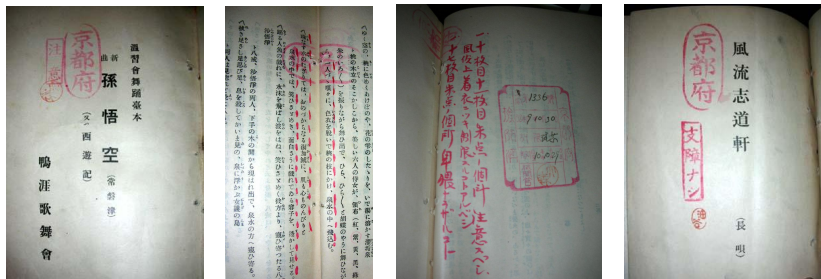
22) 鴨涯歌舞會(1934) 『溫習會舞踊臺本』鴨涯歌舞會.

一. 十七枚目朱点ノ個所卑猥ナラザルコト

이에 의하면, 10장과 11장의 붉은 점으로 표시한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 풍속상 옷을 벗는다는 표현 등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17장에서 주의점도 적혀있다. 이렇듯 전쟁 중에는 사랑, 연애, 애정 등의 표현이나 선정적인 장면은 검열에 의해서 수정되도록 요구받았다.

<손오공>의 마지막장(세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검열을 마친 대본에는 ‘檢閱濟み’와 검열한 날짜(昭和9年10月30日), 1년간의 유효기간(昭和10年10月29日), 검열관의 도장(穴森)이 찍혀있다. 온슈카이는 보통 다섯 작품이 공연되었는데, 1934년의 대본 중에서는 검열 결과 세 작품은 그대로 통과되었지만, 두 작품은 수정이 요구되었다. 검열에서 주의할 점이 없을 때에는 네 번째 사진과 같이 ‘支障ナシ’의 도장이 찍혔다.

<예4> 교토부에 의해서 검열된 온슈카이의 대본(1934년)



온슈카이 외에 전술한 가모가와오도리도 전쟁 중에는 <日出づる國> (1942년), <女性進軍> (1943년)이라는 제목으로, 전쟁 직후에는 <平和日本> (1946년)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였다. 이처럼 온슈카이, 가모가와오도리 등의 폰토초의 주된 공연은 시대에 적응하며 또 세상을 반영하면서 전승되어 왔다.

4) 기타 활동

위에서 살펴본 공연 외에 매년 6월에는 고카가이 합동전통예능 특별공연(五花街合同傳統藝能特別公演)이 열리고 있고, 또한 각 스승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이 일년 동안 여러 차례 행해진다. 무용발표회로는 와카바카이(若葉會), 가쓰미카이(かつみ會), 미야비카이 오사라에카이(雅會おさらえ會), 쓰보미카이(つぼみ會)가 1950년대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 후에(笛), 나가우타, 도키와즈, 기요모토, 오기에, 고우타 등의 발표회도 매년 또는 격년제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예를 향상시켜 오고 있다.

고카가이 합동전통예능특별공연에서는 다섯 가가이의 게이코들과 마이코들은 한 공연장에 모여 각 가가이의 특징이 담긴 무용을 공연한다. 마지막에는 다섯 가가이의 마이코가 함께 춤을 추는데, 가가이마다 다른 유파의 무용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안무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형태의 고카가이 합동공연의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가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49(昭和24)년으로, 당시는 교토카가이 합동예능회(京都花街合同藝能會)로 불렸고, 제3회(1951년)부터는 교토카가이 합동무용대회(京都花街合同舞踊大會)로 불리게 되었다²³⁾. 초기의 팸플릿 자료에 의하면, 당시는 시마바라(島原)도 가가이로서의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룻카가이(六花街)의 합동공연이었다. 언제 시마바라가 합동공연에서 제외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마바라가 점점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와 같이 고카가이의 공연으로 된 것이라 보인다.

이외에 4월 16일 헤이안진구(平安神宮)의 봄 예대제(例大祭)에서는 대극전(大極殿) 앞에서 폰토초의 마이코들이 무용을 봉납하고, 일본 3대 마쓰리 중의 하나인 기온마쓰리(祇園祭)에서는 7월 24일에 행해지는 하나가사순행(花傘巡行)에 참렬한다. 하나가사순행 후에는 야사카진자(八坂神社)에서 봉납무(花傘巡行奉納舞)가 행해지는데, 이때 폰토초의 마이코들은 가부키오도리(歌舞伎囃)를 춘다. 또한 교토 3대 마쓰리 중의 하나인 지다이마쓰리(時代祭)에서는 부인행렬(婦人行列)에도 참가하고 있다. 지다이마쓰리에서는 일본 역대 미녀였던 오노노코마치(小野小町), 시즈카고젠(靜御前), 도모에고젠(巴御前) 등으로 분장하고 행렬한다.

또한 교토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가하는데, 예를 들어 2007년 3월 10일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교토·히가시야마 하나토로(京都・東山花灯路)’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마이코는 일반예술인들과 더불어 공연을 하고, 하나토로(花灯路)를 따라 인력거(人力車) 행렬에도 참가한다. 교토의 마쓰리 참가나 일반예술인과의 교류, 지역행사 참여 등은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가가이가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전통기예보유자

교토의 게이코 중에는 교토판 인간국보로 통칭되는 예술인들이 있다. 정식명칭은 전통기예보유자로 재단법인 교토전통기예진흥재단이 인정하는 가가이의 전통예술가이다. 교토의 가가이는 가무를 중심으로 한 호가쿠(邦樂), 호부(邦

23) 京都花街組合連合會(1949-1951) 『第1-3回 京都花街合同藝能會番組』 京都花街組合連合會.

舞)를 전승해 왔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예능의 후계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가가이와 전통예능의 존속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6년 5월에 교토시 관광협회와 교토가가이조합연합회가 재단법인 교토전통기예진흥재단을 설립하였고, 전통기예후계자의 육성과 보존 계승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교토전통기예진흥재단의 활동 중 하나로써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30년 이상 예능경험을 가진 자로 전통예능의 기능향상에 노력하고 보유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통기예보유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고카가이에서 전통기예보유자로 인정된 게이코들은 다치카타(立方)가 8명, 지카타(地方)가 19명으로 모두 27명이다. 각 가가이별로 보면 기온코부가 9명으로 가장 많고 미야가와초가 8명, 폰토초가 5명, 가미시치켄이 3명, 기온히가시가 2명 배출하였다. 폰토초에서 배출한 전통기예보유자는 1996년에 히사유키(久幸), 1997년에 미요후쿠(美代福), 2000년에 라이하(來葉), 2004년에 도미즈루(富鶴)와 후데야(フテ哉)이다.

선정 당시의 연령은 최연소자가 69세이며 최고령자가 87세이다. 이들은 현재 게이코를 은퇴한 자도 있지만, 선정 당시에는 모두 현역의 게이코들이었다. 현재 가가이에서 인정된 전통기예보유자 27명 중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19명에 이른다. 이외에 폰토초의 게이코 중에는 은퇴 후 무용가나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용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는 라이미쓰(來光)와 이치야(一也)이고, 고우타(小唄)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는 우노시즈(卯の靜)이다.

이렇듯 게이코들이 전통기예보유자로 인정되거나 일반예술인으로써 활약하고 있는 점 등은 과거의 게이코들이接客부로서의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현재에는 게이코라는 직업을 초월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여성예술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게이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교토의 가가이 폰토초의 교육제도와 방법, 교육내용 등을 알아보고, 그들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며 성장을 해 가는지를 알아보았다.

폰토초 게이코와 마이코들의 교육기관인 가모가와가쿠엔은 1873년에 설치된

부녀직공인립회사가 그 원류로, 1874년에 오가이노코바로 개칭되었다. 1913년에는 사립 쇼케이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되었으며, 1940년 사립청년학교 쇼케이실무여학교를 거쳐 1948년에는 쇼케이여학원이 되었다. 이후 1958년 가모가와가쿠엔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폰토초의 초기의 교육기관에서는 가가이를 떠난 게이코의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을 했다면, 1900년대 초에는 남아있는 게이코나 마이코가 가가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술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예술과목 외에도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교양과목이 함께 학습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로는 일반 교양과목이 폐지되었다. 이 때부터 일반과목과 예술과목이 분리되어 마이코가 되는 자격이 의무교육, 즉 중학교를 마친 자로 한정되었고, 현재 가모가와가쿠엔에서는 예술과목과 다도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폰토초의 게이코와 마이코들은 자시키외에, 가모가와오도리를 시작으로 스이메이카이, 고카가이 합동공연, 스승을 중심으로 하는 발표회까지 크고 작은 무대에 선다. 또한 절이나 신사의 행사나 지역사회의 마쓰리, 공공단체의 캠페인 등 여러 행사에 참가한다. 이러한 공연들은 게이코와 마이코들의 예술 연마의 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들이 마쓰리나 지역행사 등에 참가함으로써 교토에 많은 관광객들을 운집시키고 있고, 이것은 교토의 관광사업에도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게이코와 마이코들은 교토시가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공연에도 참가하여 일반 예술인들과 더불어 전통예술을 연행하고 있다.

과거 가가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여아들의 삶의 돌파구였고 게이코들은接客부로서의 이미지가 컸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자신의 의지로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들의 예술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전통예술계승자로서 인정해오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의 게이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가가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소수를 위한 닫힌 세계였다면, 현재의 가가이는 자시키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가가이 체험기획이라든지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차 외부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가가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침체되어 왔던 가가이에 활력을 넣어 주고 있어 가가이는 지역 사회와 공생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相原恭子(2001) 『京都舞妓と芸妓の奥座敷』 文藝春秋.
- 鴨涯歌舞會(1928) 『溫習會番組』 鴨涯歌舞會.
- _____(1934) 『溫習會舞踊臺本』 鴨涯歌舞會.
- 技藝俱樂部(1927) 『かも川踊 寫眞帖』 技藝俱樂部社.
- 京都花街組合連合會(1949-1951) 『第1-3回 京都花街合同藝能會番組』 京都花街組合連合會.
- 『京都日日新聞』 1929년 6월 23일자, 1930년 3월 16일자.
- 『京都日出新聞』 1929년 9월 25일자.
- 京を語る會(1993) 『京都遊廓見聞録』 京を語る會.
- 坂本清泉·坂本智恵子(1983) 『近代女子教育の成立と女紅場』 あゆみ出版.
- ジョンフォスター(2006) 『京舞妓百景 : ジョンフォスター寫眞集』 東方出版.
- 堂本彌太郎(1913) 『かも川踊細見』 太田活版所.
- 橋爪神也·寺下勅(2005) 『京都博覽會』 『日本の博覽會』 別冊太陽 日本のあるところ 133 平凡社.
- 久多羅木儀一郎(1957) 『教育史の上より見た女紅場』 『別府大學紀要』 第7輯.
- 先斗町歌舞會(1949, 1950) 『第四十回, 第四十一回 先斗町秋季歌舞溫習會』 先斗町歌舞會.
- _____(1950) 『昭和25년 廓の栞』 先斗町歌舞會.
- _____(2007) 『平城19年 廓の栞』 先斗町歌舞會.
- 先斗町歌舞練場(1919) 『鴨川をどり』 先斗町歌舞練場.
- 先斗町鴨川學園事務室(1874-1998) 『學校調査票』 先斗町鴨川學園事務室.
- 溝縁ひろし(1995) 『京舞妓歳時記 溝縁ひろし寫眞集』 東方出版.
- _____(1997) 『京都先斗町』 光村推古書院.
- _____(2002) 『京都花街 祇園甲部·宮川町·上七軒·先斗町·祇園東』 光村推古書院.
- _____(2004) 『はんなりと京舞妓の四季』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 Dalby, Liza(1983), *Geisha*,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리자델비 지, 유용훈 역(1999), 『게이샤』 도서출판우석.

要旨

本研究は京都の五花街のうち、先斗町を現地調査し、先斗町芸妓の教育制度および方法、教育内容や、主な活動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

先斗町の初期の教育機関であった婦女職工引立会社では花街を離れた芸妓の社会生活のための教育が行われたが、1900年代の初には残された芸妓が花街で活動するための芸術教育が中心となった。その後、1910年代から1970年代の半ばまでは芸術科目とともに一般学校で習う教養科目が必須科目として教えられたが、1970年代の半ば以降には一般教養科目が廃止された。この時期から一般科目と芸術科目が分離され、舞妓になる資格が義務教育を終えた者に限定された。現在、鴨川学園のカリキュラムは邦舞や三味線、鳴り物、笛などの邦楽が中心であり、そのほか茶道や英語が教えられている。

先斗町の芸妓は座敷のほかには鴨川をどりをはじめ、水明会、五花街合同公演、おさらい会まで多様な公演を行っている。これらは芸妓の芸術練磨の場としての意味もあるが、様々な公演とともに京都の祭りや地域行事の参加などによって京都により多くの観光客が集まっており、芸妓は京都の観光事業にも大きな貢献をしている。

過去の花街が経済的に困っている女兒の突破口であり、芸妓は接待女性としてのイメージが強かったのに対して、今日には自分の意志で花街に入門することがほとんどであり、自分の芸術活動にプライドを持っている。社会でも芸妓を伝統芸術の継承者として認めてきており、現代社会における芸妓に対する認識は変わってきている。また、過去の花街が少数のための閉じた世界であったのに対して、現在の花街は座敷のほか一般人のための花街体験や地域活動にも積極的に参加しており、次第に外部の世界に広がっている。そして、花街に対する社会の関心も衰えてきた花街に活力を与えており、花街は地域社会と共生しながら発展して行ってい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京都、花街、先斗町、芸妓、舞妓、教育、芸術活動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140-725)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2동 1215호
電 話 : 02-585-0066
e-mail : koto@shu.ac.kr